



양돈장 겨울나기

실상 요즈음 양돈계의 관심은 온통 PMWS나 PED 등에만 몰려 있어서 다른 질병은 질병 축에도 못 드는 것 같군요. 돼지의 입장에서도 PED나 PMWS의 주요 피해자인 포유자돈이나 이유자돈이 아니면 사양가의 관심에서 좀 멀어지지 않았나 싶는데, 실상 열 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것 없다고 양돈장이라는 공장이 설렁설렁 잘 돌아가려면 사육단계의 어느 한 군데라도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요즈음처럼 겨울이 한참 깊어질 무렵이면 추위와 관련해서 농장의 모든 돼지들을 잘 살펴보아야 함은 당연한데, 분만사나 이유자돈사 등이야 나름대로 보온등과 같은 가온시설이 되어 있어서 다른 돼지에 비해 특혜(?)를 받고 사육되지만, 비육돈이나 임신돈은 어지간한 농장이 아니고서는 난방이라곤 꿈도 못 꾸는 게 겨울만큼이나 냉정한 그네들의 현실이지요. 그래서 뭐 섭섭하다는 건 절대로 아니고... 그저 관심 좀 가져달라는 거지요.

모돈이나 임신돈 또는 웅돈 같은 경우에 얼핏 생각하면 지방층도 두텁고 덩치도 있어서 더운 건 좀 걱정이 되어도, 추운 날씨는 널널하게 잘 견딜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우. 생각보다는 이 친구들 좀 민감성 체질이걸랑요. 저온기 하한온도가 13°C 정



황윤재 팀장
영동양돈농협 수의팀

도로 설정되어 있는데, 다시 말하자면 이 온도 이하로 돈사내 온도가 떨어지면 이 친구들 기분도 엄청 나빠지기 시작한다는 거지요. 보온의 문제는 일정 온도 이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난로 등의 가온시설을 해야 되지만, 대부분 그런 시설은 없으므로 그저 최소한의 온도유

지나 일교차를 적게 하기 위해서는 단열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군요. 건축자재로서의 단열재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양돈장에서 사용되는 단열재로는 스티로폼이 충전된 샌드위치판넬과 우레탄 폼, 그 밖에 몇 가지 종류의 보온덮개 등이 있는 건 잘 아시겠지요. 좋은 품질의 스티로폼은 두께 1인치(2.54cm)당 R수치(열저항수치)가 최대 4정도가 된다 하니, 100mm 판넬이면 R수치가 15가 넘게 되므로 우리나라의 겨울은 이 정도만 해도 견딜만 하네요. 그런데 같은 스티로폼이라도 품질 차이가 적지 않으니 좋은 제품을 고르는 안목이 중요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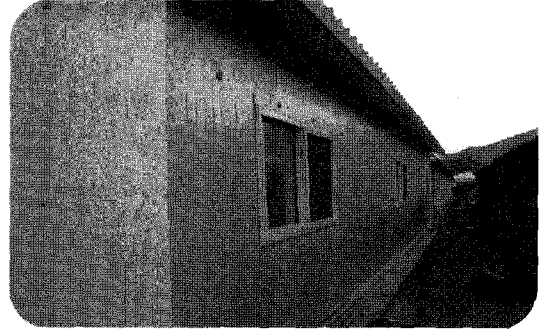
그런데 아무리 두터운 스티로폼 등으로 단열을 해도 다음 <사진 1>처럼 창문이 있는 경우는 그 창문으로 상당한 열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겨울철엔 창문도 단열재로 적절하게 막아주는 것이 단열에 그럴듯한 보탬이 되지요. 그리고 지난달에도 말했지만 그렇다고

이 구멍 저 구멍 돈사에 있는 구멍이란 구멍을 모두 막아버리면 누구도 감당 못할 비극이 시작된다는 걸 명심하시고요. 입기구와 배기구의 개념에 대해서는 지난달에 말씀드렸으니 오늘은 그냥 넘어가지요.

며칠 전 저의 관리를 받는 한 농장을 들렀다가 전면 슬러리바닥으로 되어 있는 임신사를 돌아보았는데, 그 농장에서는 심각한 분노 문제로 슬러리를 제 때에 처리를 못하고 있어서 임신사의 바닥이 슬러리로 넘치고 있었습니다. 농장에서는 곧 처리하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될 것이라며 오히려 저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만, 농장에서는 이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있는 눈치더군요.

슬러리가 넘칠 때에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물론 똥으로 오염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병원성 미생물의 감염입니다. 장염을 일으키는 대부분의 세균과 바이러스는 당연히 고농도로 농장을 오염시킬 수 있고, 기타 PRRS, 파보바이러스, 돈단독 등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병원성 미생물이 온 양돈장을 오염시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피해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임신돈들이 (똥)물에 젖은 차가운 바닥에 장시간 누워 있게 되면 이것은 곧 사(유)산의 증가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지요. 게다가 또한 번식사 바닥의 오염은 곧 번식돈의, 생식기의 오염을 뜻하므로 이의 결과로 질루 및 방광염, 신우신염 등의 발생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번식성적의 저하로 귀결되어 궁극적으로 농장의 수익성을 적지 않게 떨어뜨리게 되므로 슬러리가 넘쳐도 되는 걸로 인식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사료급이의 문제에 있어서 당연히 겨울철에는 타 계절보다 사료량이 늘어나야겠지요.



▲ <사진 1> 100mm 샌드위치판넬로 구성된 돈사의 외부전경

그런데 사료량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모돈의 체평점을 어떻게 유지해 나가느냐에 이어지는 문제이므로 농장마다 포유시와 이유시의 이상적인 모돈 체형(손으로 촉진하였을 때 등뼈가 만져지는 정도의 체형을 체평점 3정도로 본다)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는 것이 포인트이지요. 어떤 이는 모돈을 이유시킨 후 사료급이량에 대해 별 신경을 쓰지 않는데, 이유 직후부터 교배 후 보름 정도까지의 사료관리가 산자수와 자돈의 크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유시부터 약 3일간은 포유말기에 먹던 양의 사료를 주어야 번식에 악영향을 주지 않게 되는데, 특히 겨울철의 사료가 질과 양에서 부족해진다면 모돈이 영양적인 이화상태에 빠져 이것이 불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농장마다 큰 차이가 있지만 겨울철에 임신사에 일조량이 크게 부족해지는 농장이 있는데, 적어도 하루 10시간 이상은 충분한 밝기의 햇빛이 돈사내로 들어와 주어야 합니다. 밝기가 어느 정도냐의 문제가 있는데, 조도를 무슨 수치로 표현하면 전혀 감이 잡히지 않으니 그저 돈사의 가장 어두운 부분에서도 신문을 읽을 수 있을 정도의 밝기면 된다고 표현하는 것이 좋겠군요. **양돈**